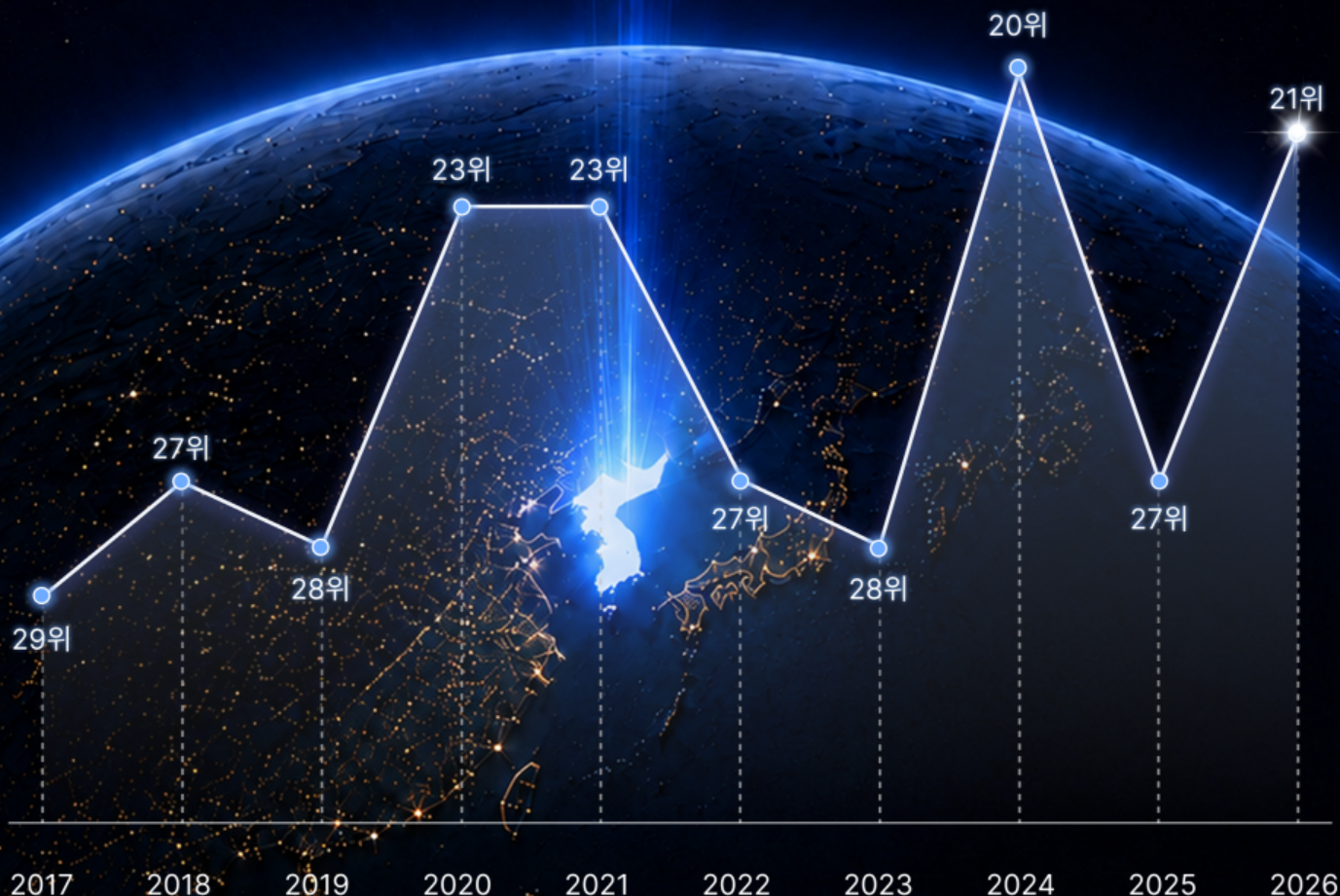


2026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2026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2026.6.29. 혁신정보분석센터 송화연 센터장

요약문

□ 주요 내용

- IMD 국가경쟁력 종합평가 결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등 상위권 국가는 5년 연속 10위권 내를 지켰으며, 한국은 최근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한 21위에 위치
- 한국은 부문별 순위에서 기업효율성(34위, ↑10)과 인프라(15위, ↑6)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으며, 정부효율성 분야는 전년과 동일(31위)하고 경제성과 분야는 소폭 하락(14위, ↓3)
- 한국은 과학 인프라 항목에서 2위를 유지하였으며, 양적 지표의 상위권 유지/상승과 설문 지표의 하락으로 지표의 양극화 현상이 2026년에도 지속
- 한국은 기술 인프라 항목에서 27위로 전년 대비 12단계 상승하였으나, 10위권 내 상대적 강점 지표는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액’(7위) 하나에 불과하며 통신분야 기존 강점 지표 하락

□ 결론 및 시사점

- IMD는 국가경쟁력은 더 이상 주로 비용이나 규모, 혹은 혁신의 경쟁이 아닌 제도적 신뢰성의 경쟁이라고 명시하며 적절한 국가 역량의 가치를 높게 평가
- 한국은 2026년 과학인프라와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각각 2위, 27위이며, R&D 투자 규모 비율은 높은 편이나 기존 강점이었던 통신분야 기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
- 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통신 기술/전문 인력 공급에 대한 산업 수요 충족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1 개요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는 1989년부터 매년 「IMD 세계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간하여 전 세계 각 국가경쟁력의 현황과 분석 결과를 제시

※ 국가경쟁력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 가치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환경 구축 능력까지 포함하여 정의

○ IMD는 “경쟁력은 더 이상 비용이나 규모, 혹은 혁신의 경쟁이 아닌 제도적 신뢰성의 경쟁”이라고 명시하며 예측 가능한 규제(제도)와 실효성 있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높게 평가

○ 2026년에는 7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성과, 정부 효율, 기업 효율, 인프라 4개 부문을 341개 지표를 활용

* 341개 지표 중 262개 지표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며, 170개 정량지표와 92개 정성지표로 구성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6」 재구성

[그림 1] 국가경쟁력 지표 체계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6」 재구성

[그림 2] 국가경쟁력 순위 결정 방법

□ 이번 호는 IMD가 2026년 6월에 발표한 IMD 세계경쟁력 순위 중 국가경쟁력 및 과학기술 관련 부문(과학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에 대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분석

2 국가경쟁력 순위

□ IMD 국가경쟁력 종합평가 결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등 상위권 국가는 5년 연속 10위권 내를 지켰으며, 한국은 최근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한 21위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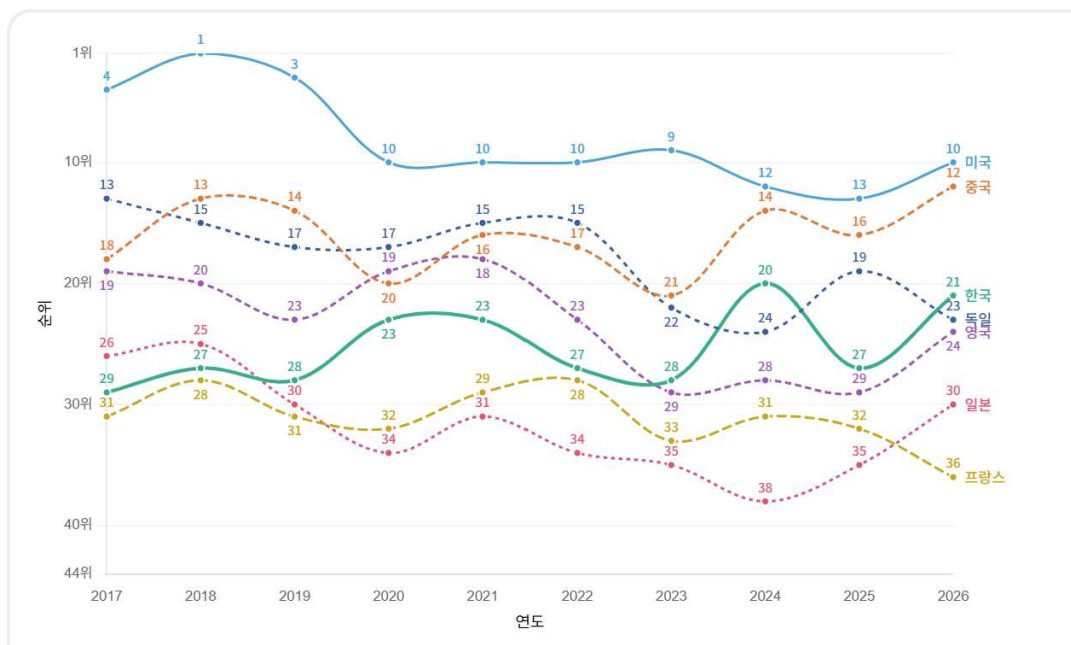
○ '24년 1위, '25년 2위였던 싱가포르가 다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콩, 스위스, 대만, UAE 순이며, 작년에 상위 10위권에 신규 진입한 카타르는 올해 11위, 반면 미국이 10위로 10위권 재진입

○ 미국은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10위, 중국은 4단계 상승한 12위, 독일은 4단계 하락한 23위, 영국은 5단계 상승한 24위, 프랑스는 4단계 하락한 36위, 일본은 5단계 상승한 30위를 각각 차지

○ 한국은 평가대상 70개국 중 21위로 최근 5년 순위 변동성이 크며, 전년 대비 6단계 상승

〈표 1〉 종합 순위 상위 10개국 추이(2022-2026)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한국순위
2026년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대만	UAE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21위
2025년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	UAE	대만	아일랜드	스웨덴	카타르	네덜란드	27위
2024년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스웨덴	UAE	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20위
2023년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대만	홍콩	스웨덴	미국	UAE	28위
2022년	덴마크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대만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27위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재구성

[그림 3] 주요국 종합 순위 추이(2017-2026)

- 한국의 경우 4대 부문별로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으며, 정부효율성 분야는 전년과 동일(31위)하고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소폭 하락(11→14위)
- (경제 성과) 국제무역(34→33위), 국제투자(21→20위)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국내경제(8→10위), 고용(5→7위), 물가(30→40위) 부문 순위 하락
- (정부 효율) 조세정책(30→22위), 제도적 틀(24→21위), 사회적 틀(36→30위)은 순위가 상승했으나, 정부재정(21→22위), 기업 관련 법규(50→53위) 부문 순위 하락
- (기업 효율) 생산성(45→34위), 노동시장(53→45위), 금융(33→29위), 경영관행(55→49위), 가치와 태도(33→18위) 5개 부문 모두 상승
- (인프라) 기본인프라(35→28위), 기술인프라(39→27위), 환경과 보건(32→29위), 교육(27→21위) 부문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고 과학인프라(2위→2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6」 재구성

[그림 4] 한국의 4대 부문 및 세부 항목 순위 추이

□ IMD는 자본과 인재가 높은 투자나 선도적인 기술이 집약된 곳이 아닌 안정적 규칙을 운영하는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상위권 국가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피력

○ 종합 순위 상위 10개국은 큰 순위 변동 없이 연속성을 유지하였으며, 1위인 싱가포르의 강력한 제도적 환경 기반으로 기업 효율 부문에서 1위로 도약(7위 ↑)

○ 한국은 과학 인프라가 2위로 단일 지표 기준 세계 최상위이며 기업가정신·AI 수용도 등 가치와 태도 18위(15위 ↑), 생산성 34위(11위 ↑)로 전년 대비 대폭 개선

〈표 2〉 종합 순위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특징

순위	국가	주요 특징
1위	싱가포르	- 효율적인 정부 정책 시스템과 1인당 생산성 세계 최고(PPP \$212,669) - 아파트 임대료는 높고 언론 자유, 사회적 평등성 등은 낮은 수준
2위	홍콩	- 국제 무역 및 투자 허브 기능 복원으로 비즈니스 효율성(3위) 및 정부 효율성(2위) - 높은 생활비 지수(67위) 등이 위험 요인
3위	스위스	- 교육 인프라 세계 1위, 과학인프라 세계 3위로 기초 기반이 견고 - 국제 투자 및 국내 투자 부문 약세
4위	대만	- 기술인프라 10위, 과학인프라 4위로 반도체·전자 수출 부문 지속적 강세 -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CO ₂ 배출 문제 해결 필요
5위	UAE	- 정부 효율성 및 경제 성과 부문 최상위권으로 AI 및 첨단 지식 기반 경제로의 다각화 - 과학인프라(32위), 언론 자유(68위) 등에서 약세
6위	덴마크	- 국가 전반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성숙도 최고 수준 - 민간 투자와 기업가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고세율 문제 보유
7위	아일랜드	-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FDI) 지속 유럽 기술·금융서비스 허브 역할 - 국내 연구 역량보다 외국R&D 투자 유입의 영향일 가능성
8위	네덜란드	- 기술인프라 5위, 과학인프라 11위로 서유럽의 핵심 기술 거점 역할 및 성과 창출 - 높은 아파트 임대료와 세금 정책이 지속적 약점
9위	스웨덴	- 높은 재생 에너지 비중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 인프라 부문 독보적 상위권 - 지속적인 청년 실업, 세금 정책 문제
10위	미국	- 과학인프라 세계 1위, 기술인프라 4위 등 거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원천 기술 투자 -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에 기인하여 정부 효율성과 법치주의 지수 하락
21위	한국	- 세계 1위의 R&D 집중도와 하이테크 수출 강국 - 지식 보호 부족, 사이버 보안 의식 취약 등 소프트웨어와 제도적 측면 미흡

3 과학인프라 순위

□ 2026년 과학 인프라는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 다음으로 스위스, 대만, 독일 순

○ 전체 지표는 23개*(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18개)이고, 상위 10위권 국가들이 대부분 전년과 동일한 국가로 각 나라의 인프라에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

* 정량지표 16개, 설문지표 3개, 보조지표 4개

○ 주요국 중 미국은 1위(-), 독일 5위(↓ 1), 중국 6위(-), 일본 7위(↑ 1), 영국 9위(↑ 2), 프랑스 15위(↓ 1)이며, 한국의 경우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17년 8위 → '26년 2위)하여 최근 최상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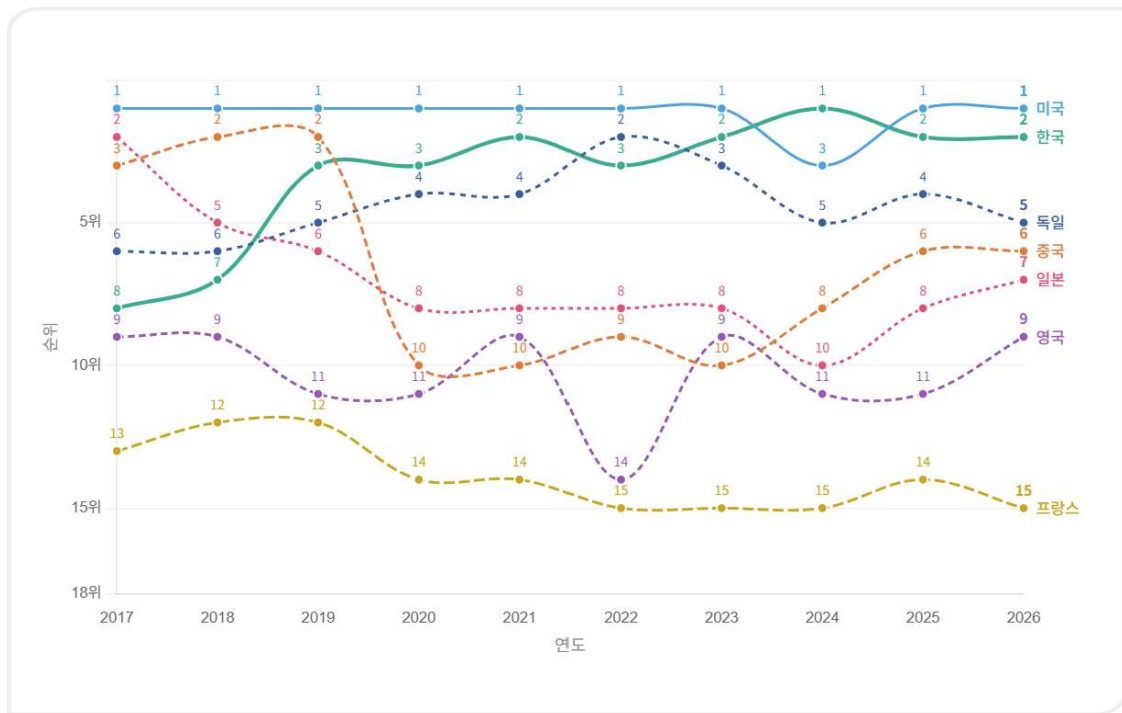
- 미국은 과학 인프라에서 '24년 일시적 하락(3위)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1위를 유지

- 일본과 프랑스는 종합 순위(각각 30위, 36위)와 달리 과학 인프라에서는 상위권(7위, 15위)

〈표 3〉 IMD 과학 인프라 상위 40개국 순위

국가	2025년 순위	2026년 순위	국가	2025년 순위	2026년 순위
미국	1	1	이탈리아	21	21
한국	2	2	홍콩	22	22
스위스	3	3	스페인	24	23
대만	5	4	인도	27	24
독일	4	5	포르투갈	26	25
중국	6	6	체코	23	26
일본	8	7	뉴질랜드	25	27
스웨덴	7	8	폴란드	32	28
영국	11	9	사우디아라비아	29	29
덴마크	9	10	말레이시아	35	30
네덜란드	10	11	룩셈부르크	30	31
핀란드	13	12	UAE	28	32
오스트리아	12	13	튀르키예	38	33
싱가포르	15	14	헝가리	31	34
프랑스	14	15	슬로베니아	34	35
캐나다	17	16	아이슬란드	33	36
벨기에	16	17	태국	37	37
아일랜드	19	18	그리스	36	38
노르웨이	18	19	에스토니아	41	39
호주	20	20	푸에르토리코	40	40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재구성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재구성

[그림 5] 주요국 과학 인프라 순위 추이

□ 한국의 과학 인프라 순위는 국가경쟁력 20개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이며, 양적 지표의 상위권 유지 및 상승과 설문 지표의 하락으로 지표의 양극화 현상이 2026년에도 지속

※ ('22년) 3위 → ('23년) 2위 → ('24년) 1위 → ('25년) 2위 → ('26년) 2위

○ 노벨상 수상 지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적 지표가 10위권 이내의 강점 지표*이며, 총 16개 지표 중 '총 연구개발투자'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순위 상승 또는 유지

*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1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투자비 및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1위, 인구 10만 명당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 수 1위 등

○ '25년 대폭 하락한 설문 지표의 순위가 여전히 하락세로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46위(↓2), '지적 재산권의 보호 정도' 54위(↓2), '산학 간의 지식 전달 정도' 49위(↓9)

- '25년에는 '24년 순위보다 최소 9단계에서 최대 21단계까지 하락하였으며, '26년에는 항목 별로 2단계~9단계 연속 하락

※ 과학 인프라의 설문지표 문항은 '과학적 연구와 관련된 법규가 혁신을 촉진한다', '기업과 대학 간의 지식 이전이 원활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정성적 판단으로 집계

〈표 4〉 한국 과학 인프라 지표 현황

구분		순위		순위변화
		2025년	2026년	
과학 인프라		2	2	-
총 연구개발투자	정량	5	6	↓1
GDP 대비 총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	정량	1	1	-
인구 1인당 연구개발투자	보조*	8	8	-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정량	5	5	-

구분		순위		순위변화
		2025년	2026년	
과학 인프라		2	2	-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정량	1	1	-
총 연구개발인력 수	정량	5	5	-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 수	정량	4	4	-
기업 총 연구개발인력 수	보조*	6	6	-
인구 천 명당 기업 연구개발인력 수	보조*	3	2	↑ 1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정량	1	1	-
전체 졸업자 대비 과학분야 졸업자 비중	정량	11	9	↑ 2
과학분야 논문 수	정량	8	8	-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수	보조*	29	30	-
인구 백만 명당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수	정량	29	30	-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 수	정량	4	4	-
인구 10만 명당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 수	정량	1	1	-
출원인 국적별 특허 등록 수	정량	4	4	-
인구 10만 명당 출원인 국적별 권리유효 특허건수	정량	3	3	-
AI 관련 기술 특허 건수	정량	3	3	-
중간-첨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정량	5	5	-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설문	44	46	↓ 2
지적 재산권의 보호 정도	설문	52	54	↓ 2
산학 간의 지식 전달 정도	설문	40	49	↓ 9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재구성

* 보조지표(Background information)는 실제 부문별 순위평가에는 사용되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

〈표 5〉 과학 인프라 설문지표 문항과 순위

세부지표		설문 문항	2024년 순위	2025년 순위	2026년 순위
과학 인프라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과학적 연구와 관련된 법규가 혁신을 촉진한다.	35	44	46
	지적 재산권의 보호정도	지식재산권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다.	31	52	54
	산학간의 지식 전달정도	기업과 대학 간의 지식 이전이 원활하다.	25	4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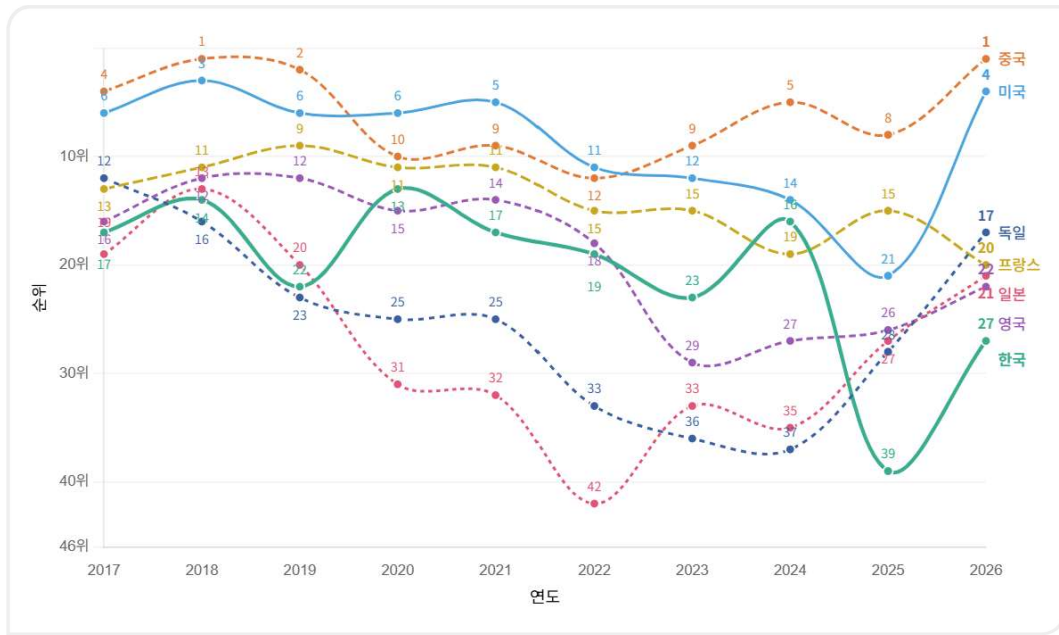
4 기술인프라 순위

- 2026년 기술 인프라 항목 1위는 순위가 급등(↑7)한 중국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싱가포르,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 순
- '25년 10위권 국가 중 8위에서 1위로 급등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덴마크 2위 → 3위, 스위스 3위 → 7위, 홍콩 4위 → 6위, 아이슬란드 5위 → 11위 등 순위가 하락
- 미국은 21위에서 4위로 순위가 급등하였으며, 주요국 중 독일 17위(↑9), 프랑스 20위(↓5), 일본 21위(↑6), 영국 22위(↑4)로 미국과 중국의 순위 하락과 일부 국가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던 '25년 양상과 상이

〈표 6〉 IMD 기술 인프라 상위 40개국 순위

국가	2025년 순위	2026년 순위	국가	2025년 순위	2026년 순위
중국	8	1	일본	27	21
싱가포르	1	2	영국	26	22
덴마크	2	3	폴란드	50	23
미국	21	4	카타르	16	24
네덜란드	7	5	푸에르토리코	17	25
홍콩	4	6	호주	42	26
스위스	3	7	한국	39	27
핀란드	6	8	라트비아	19	28
오만	22	9	사우디아라비아	23	29
대만	10	10	요르단	53	30
아이슬란드	5	11	벨기에	24	31
스웨덴	9	12	베트남	-	32
말레이시아	25	13	뉴질랜드	40	33
아일랜드	13	14	체코	34	34
UAE	12	15	스페인	33	35
캐나다	11	16	리투아니아	20	36
독일	28	17	필리핀	43	37
노르웨이	14	18	쿠웨이트	35	38
바레인	18	19	태국	32	39
프랑스	15	20	오스트리아	30	40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재구성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재구성

[그림 6] 주요국 기술 인프라 순위 추이

□ 한국은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2025년 39위로 전년 대비 급락했으나 2026년 27위로 반등

※ ('22년) 19위 → ('23년) 23위 → ('24년) 16위 → ('25년) 39위 → ('26년) 27위

○ 10위권 내 상대적 강점 지표는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액'(7위) 하나에 불과하며, 기존 강점 지표* 순위의 지속 하락과 통신 분야 정량 지표**의 순위 급락

*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5G 기준)('24년 6위 → '25년 11위 → '26년 23위)

**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 50위(↓20)

○ 1인당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55위),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정도(53위) 등이 상대적인 약점 지표

□ 전년 대비 총 17개 지표 중 7개 지표의 순위가 상승, 6개 지표가 하락하였으며, 정량 지표는 하락하였으나 작년에 급락했던 설문 지표 중 일부 대체된 AI 관련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위치

○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30 → 50위)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11위 → 23위) 등 일부 정량 지표 순위가 급락

○ AI 관련 설문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기업의 AI 투자(18위)', 'AI 역량(21위)', 'AI 사회적 접근도(30위)' 등이 전년 설문 문항* 대비 높은 순위를 차지

* '25년 문항: '디지털 기술의 사용 용이성'(59위),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59위),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49위) 등

○ 그러나,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정도'(46위 → 53위),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40위 → 48위) 등 '25년 순위가 대폭 하락했던 일부 지표의 하락세 가중화

〈표 7〉 한국 기술 인프라 지표 현황

구분		순위		순위변화
		2025년	2026년	
기술 인프라		39	27	↑ 12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	정량	30	50	↓ 20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5G 기준)	정량	11	23	↓ 12
1인당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정량	58	55	↑ 3
AI 사회적 접근도*	설문	-	30	-
보안 인터넷 서버 수	정량	42	41	↑ 1
인구 천 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정량	11	11	-
인구 천 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정량	24	24	-
평균 인터넷 대역폭 속도	정량	12	13	↓ 1
AI 역량*	설문	-	21	-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정도	설문	46	53	↓ 7
공공-민간 파트너십	설문	59	35	↑ 24
법적환경이 AI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설문	-	47	-
기업의 AI 투자*	설문	-	18	-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	정량	7	7	-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정량	11	11	-
서비스 수출액 중 ICT 서비스의 비중	정량	27	24	↑ 3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설문	40	48	↓ 8

* 2026년 신규 설문 문항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재구성

〈표 8〉 기술인프라 설문지표 문항과 순위

세부지표		설문문항 (6점 척도)	2024년 순위	2025년 순위	2026년 순위
기술인프라	AI 사회적 접근도	AI 접근성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	30
	AI 역량	AI 역량이 기업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	-	21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29	46	53
	공공-민간 파트너십	민관파트너십이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3	59	35
	법적환경이 AI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기업들의 AI 관련 법규 준수가 충분하다.	-	-	47
	기업의 AI 투자	기업들의 AI 투자가 외국 경쟁사보다 앞서 있다.	-	-	18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사이버 보안이 적절히 관리된다.	20	40	48

□ IMD는 2026년 보고서에서 별도의 설문*을 통해 기업 신뢰도를 저해하는 경제적 압력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공급망 교란·지연, 환율 변동성, 내수 약화 문제에 직면

* IMD Executive Opinion Survey 2026 — 전 세계 6,900명 고위 임원에게 질문: "귀 경제에서 기업 신뢰도를 가장 저해하는 경제적 압력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노동력 부족 또는 인건비 상승, 핵심 투입재·소비재의 지속적 인플레이션, 공급망 교란 또는 지연, 높은 차입 비용 또는 제한된 금융 접근, 내수 약화, 환율 변동성 중 복수 응답 가능)

- 전 세계의 보편적 압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나, 한국은 이 항목에선 상위 10위권 밖
- 그러나, ‘공급망 교란·지연(4위, 아태·북미 중심, 수출 의존 경제 반영)’, ‘환율 변동성(3위, 아태 수출 경제 공통 취약점)’, ‘내수 약화(7위, 중국·홍콩·태국과 함께 아태 소비 둔화)’ 문제가 지적됨
- IMD는 해당 결과를 제도적 차원 설문*과 대비하여 추가 분석하였으며, 한국은 금융 부담은 낮고 제도적 압력은 중간인 것으로 추정

* ‘뇌물수수 및 부패의 존재’ 설문 항목 이용

※ 제도가 건전한 국가(그림 7 우측)에서는 금융 압력이 하나의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인식되나, 제도가 취약한 국가(그림 7 좌측)에서는 금융 압력이 다른 압력들과 결합·증폭되는 것으로 분석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Booklet 2026」, IMD Executive Opinion Survey 2026

[그림 7] 제도 품질과 금융 제약의 관계

6 요약 및 시사점

- IMD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전년대비 인프라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21→15위) 하였으며, 특히 기술인프라 항목 순위 상승(39→27위)
 - 한국은 과학 인프라 항목에서 2위를 유지하였으며, 양적 지표의 상위권 유지 및 상승과 설문 지표의 하락으로 지표의 양극화 현상이 2026년에도 지속
 - 한국은 기술 인프라 항목에서 27위로 전년 대비 12단계 상승하였으나, 10위권 내 상대적 강점 지표는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액’(7위) 하나에 불과하며 통신분야 기존 강점 지표 하락
 - ※ 이동통신 비용(55위), AI 역량(21위), AI 법규 준수(47위), 사이버보안(48위) 등 관련 지표 전반에서 중하위권
- 과학인프라 2위라는 세계적 R&D 역량이 기술인프라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에서 응용·상업화·인프라 구축까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
 - R&D 투자 규모 비율은 높은 편이나 기존 강점이었던 통신 분야 기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되며, 단일 지표의 개선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 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통신 기술/전문 인력 공급에 대한 산업 수요 충족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참고문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6, 2025.06.
- IMD World Competitiveness Booklet 2026, 2025.06.

저자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송화연 센터장/연구위원 (hsong@kistep.re.kr, 043-750-2425)